

난민촌 밖으로:

카렌족 난민과 외부 세계의 연계에 관한 연구

이상국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이 연구는 태국국경 지역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이 외부세계와 어떤 연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난민들의 생활을 난민촌내에서만 다루고 그들을 피해자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던 것을 비판한다. 이 연구는 카렌족 난민들이 비록 낯설고 제약이 많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난민촌 바깥 세계와 연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카렌족 난민촌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지만, 구호물자분배체계, 교육, 교회 등에 의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밝힌다. 그러한 연계에서 중심 난민촌이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의 국경 도시는 난민들과 외부세계를 잇는 창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난민들이 맺는 연계가 해외 카렌족과 외국인의 개입, 정보통신 문명을 통해 초국가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주제어: 카렌족 난민, 난민촌, 연계, 초국가적 연계, 국경

I. 서 론

카렌족은 미얀마의 여러 종족들 중에서 미얀마 정부와 가장 오랫동안 대결을 벌여오고 있는 종족이다.² 1940년대 후반에 카렌족의 대표적인 정치기구로 설립된 ‘카렌민족연합’(KNU, Karen National Union)은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버마족 정치지도자들에게 카렌족 자치주 설립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거부당하자 무장 투쟁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그 반란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KNU는 1980년대 말까지 태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을 장악하며 자체적인 통치체제를 확고히 구축했었으나(Rajah, 1990; Smith, 1999), 그 이후 미얀마 민주화운동(88년 ‘광군의 봄’)을 제압하며 등장한 신군부가 군사력을 강화하여 국경지역을 장악해 들어오자, 주요 요새를 뺏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활 터전을 잃은 수많은 카렌족들이 피난처를 찾아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후에도 미얀마 정부와 KNU 간의 무력 충돌은 규모를 달리하며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난민 발생 사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난민 발생 사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카렌족 난민과 NGO의 권력관계(Chiang, 2002), 난민촌에서 카렌족 민족주의의 조직화(Ng, 2000; Rajah, 2002), 난민 사태 이후의 민족주의 운동의 변화 양상(Chen, 1998), 난민촌에서 난민들의 적응 양상(Lee,

-
1. 1989년 6월 18일에 미얀마 군부정권이 국가 명칭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었다. 미얀마 정부는 식민주의적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하에 국가 명칭과 지역 명칭을 ‘미얀마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반미얀마 정부 활동가들과 미국, 영국 등의 일부 국가들은 ‘버마’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국제관계에서 통용되는 공식적 명칭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미얀마’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미얀마의 주요 종족을 일컬을 때 ‘미얀마족’이 아닌 ‘버마족’(Burman)이라 할 것인데, 후자가 전자에 비해서 학술적으로 아직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미얀마에 135개의 소수종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산족, 카렌족, 까친족 등 주요 7개 소수 종족의 주요 거주지는 이들 종족 이름의 행정주(State)가 설치되어 있다.

2001) 등이다. 태국 거주 카렌족 난민뿐만 아니라 미얀마 카렌주(Karen State) 내부에서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삶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연구도 있다(Decha, 2006; Thornton, 2006). 특히 '카렌인권그룹'(Karen Human Rights Group)은 자체 웹사이트(www.khrg.org)를 통해 국경지역에서 겪는 카렌족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카렌족 난민 이외에도 랑(Lang, 2001, 2002)은 민족 난민과 학생운동가들의 국경지역 활동을 다루었으며, 푸아(Phua, 2000)는 까야족 난민이 난민촌 내에서 조직해 나가는 민족주의 운동에 주목했고, 그룬디워와 왕(Grundy-Warr and Wong, 2002)은 까야족과 산족 난민들의 강제 이주 과정과 양상을 조명했다. Forced Migration Review은 특집판(2008년 4월, www.fmreview.org)을 마련하여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주제 하에 미얀마 난민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학술적인 연구이외에도 난민국체구호기구들 및 인권단체들의 각종 보고서, 언론매체들의 보도 등은 카렌족 난민의 상황을 수시로 소개하며 외부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기존에 카렌족 난민을 다룬 학술적인 연구나 엔지오 보고서, 언론 보도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저에 인도주의적인 태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보도에서 이러한 목적의식을 배제하기란 어려운 과제였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인도주의적 입장은 카렌족 난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외부에 알려 지원의 손길이 닿도록 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순수한' 인권 옹호 차원의 연구는 난민들을 오로지 피해자적인 관점에서만 다루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적극적인 삶의 의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면이 많았다. 인도주의적 태도는 난민들을 집단적으로 객체화시키면서 난민 개개인들이 각자의 삶을 해석하는 주관적인 내러티브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말키(Malkki, 1996: 378)가 언급하듯이, "이러한 비역사적인 보편주의는 난민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고 역사적인 행위자로 접근하기 어렵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난민촌이라는 공간 내 에서만 난민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난민들의 삶이 오로지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묘사하는 측면이 강했다. 난민촌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섬과 같은 공간이며 난민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소우주적인 세계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향은 비단 난민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 세계를 다루었던 전통적인 인류학적 연구들은 지역민의 삶의 독자성과 특이성을 강조한 나머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영향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 공간, 그리고 문화의 폐쇄적 일대일 대응을 당연시한 것이다(Gupta and Ferguson, 1997: 34).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는 이러한 연구 경향이 지역민 또는 원주민들을 특정 지역에 ‘가두어’ 버렸다고(Spatial Incarceration) 비판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 경향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학자들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사람들 삶의 이동적인 측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에서는 ‘난민’이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포착하지 못했던 경계를 넘는 이동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면서도 ‘정상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난민들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국경지역에 주목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국경지역은 국가들 사이에 끼인 하찮은 조각 같은 공간이거나 주변적인 공간이 아니라 초국가시대에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노드와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Gupta and Ferguson, 1997: 48).

사실 ‘난민’ 문제와 국경을 넘는 이주는 작금의 세계화론자들이 과장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스트모던 시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특히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은 전근대시기에도 왕조 간에 또는 세력간의 충돌을 피해 이주하는 난민들의 물결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Halliday, 1913; Lee, 2007; Renard, 1986). 이러한 역사적인 이주의 현상은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에서 라자(Raja, 1990)의 연구는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는 여러 정체들의 영향력이 강도를 달리하며 동시에 한 지역에 미쳤던 전통시대 동남아의 지리적 특성을 탐구한 학자들(Tambiah, 1976; Lehman, 1981)의 논의를 발

전시킨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벤다이어그램의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되는데, 즉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원의 모양을 가진 각기 다른 정체들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에 서로 겹쳐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 벤다이어그램의 원들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며 겹쳐진 영역도 달라진다. 원래 라지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국경지역에서 미얀마 정부의 영토와 카렌족들의 통치 영역이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즉 미얀마 정부의 영토가 침투 공격에 용이한 계절인 건기에는 팽창되었다가 우기에는 축소되는 패턴을 띠었던 것을 그런 이미지로 그려본 것이다. 라지는 비록 시도하지 않았지만, 국경지역에서의 태국 영토 역시 태국 정부가 국경지역을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태국 정부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원 모양으로 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은 미얀마 정부, 카렌족, 태국 정부의 영향력이 중첩적으로 미치고 있는 벤다이어그램의 교집합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으며 그 교집합의 영역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것은 곧 국가 권력이 태국-미얀마의 국경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근대적 국가 형태에서 나타나듯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의 권력이 약화되는 성향이 여전히 현대의 국가체제에서도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카렌족 난민들의 이동과 연계는 바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은 카렌족 난민들이 바깥 세계와 연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세계화 이론가들의 논의에서는 부족해 보인다.

비록 세계화론자들이 난민 이주의 역사성과 공간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부족한 면을 보였을지라도, 적어도 국가의 통제력과 국경의 불가침적인 절대성을 맹목적으로 수용한 근대주의적 연구 행태를 비판하면서 사람들의 경계를 넘는 이주와 연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한 것은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환기에도 난민들은 난민촌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묶인 채 외부 구호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이 쉽게 사라지

지 않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인적, 물질적 자원을 동원하여 난민들에 대한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기구들이나 인권옹호자들에게 있어서, 후원자인 ‘우리’와 수혜자인 ‘그들’ 간의 관계를 넘어서 난민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보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난민들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난민촌의 테두리를 벗어나 그들이 어떻게 바깥세계와 연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려 한다. 물론 필자는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난민촌의 폐쇄성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난민들은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려는 태국 정부에 의해 통제와 관리의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난민촌에서 국가 권력의 압박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신체 이동에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난민들이 비록 제약이 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철저히 난민촌 안에만 갇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들은 난민촌 밖과 연결을 시도하며 ‘동물원에 갇혀 지내는 동물’이기를 거부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 연결 과정에서 난민촌은 새로운 도메인이 되거나 ‘노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 연구는 밝힌다. 나아가 이러한 연계속에 난민들의 공동체 의식 내지 민족주의적 의식이 유지강화되고 있음을 이 연구는 드러낸다.

이 연구의 구성을 보면 우선 카렌족과 버미족 사이의 종족적 갈등과 난민 발생 역사를 다룬다. 식민시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2차 세계대전과 독립 시기를 거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종족 갈등은 현대 시기에 난민 발생 사태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대규모로 발생한 카렌족들의 국경을 넘는 이주에 대해 주목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카렌족 난민들이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의 여러 난민촌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어 일면 그들 사이에 아무런 연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연결 고리들에 의해 흩어져 사는 난민들 사이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중심 난민촌과 그 주변의 국경 도시가 난민 간 그리고 난민촌 간 연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목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난민을 둘러싼 연계가 국경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드

러낸다.³

II. 종족 갈등과 난민 이주

카렌족은 에야워디(Ayeyarwady) 델타 지역과 양곤(Yangon) 지역 등 주로 미얀마의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부 국경지역에도 거주하고 있다. 카렌족의 인구는 출처에 따라 다르게 추산되는데, 미얀마 정부는 3백만 명으로 보고 있는 반면, KNU는 7백만 명으로 추산한다(인터뷰, KNU 사무총장, 2005. 6. 24).⁴

카렌족은 언어와 문화에 따라 여러 하위 종족으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 스고(Sgaw)족, 포(Pwo)족, 브웨(Bwe), 파오(Pao)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카렌족들은 여러 하위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에 따라 주류종족인 버마족에 동화되는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모든 카렌족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정체성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에야워디 델타 지역 카렌족들은 버마족 문화에 거의 동화되어 카렌족과 버마족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양곤의 카렌족조차도, 특히 젊은 카렌족은 카렌어 보다 버마어를 더욱더 능숙하게 구사하며 미얀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이 띈다(Oh, 2003).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카렌족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KNU의 정치적인 영향 아래 놓인 카렌족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하는데, 이들을 구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물론 KNU가 직접 통치했던 거주 지역과 난민촌 거주 카렌족들은 KNU의 영향력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

-
3. 이 연구는 필자가 2000년 초에서 2009년 초까지 수차례 국경지역 난민촌을 방문하고 수개월간 맬라(Mae La)난민촌에 체류하면서 얻은 자료들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또한 싱가포르 거주 시기(2003년에서 2007년)에 카렌족 공동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관찰했던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4. 1931년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총 14백만 명의 미얀마 총인구 중에서 카렌족 인구가 1백37만 명이었다(Renard, 2003: 8). 이 이후로 신뢰할 만한 종족별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러나 양곤 카렌족과 에아위디 델타 카렌족 등 미얀마 내부에 거주하는 카렌족들 중에서도 역시 KNU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거나,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한편으로 미얀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카렌족으로서의 정체성도 동시에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태국영토 내에 거주하는 카렌족은 40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주로 태국 북서부 지역에 거주한다(Delang, 2003: x). 태국 카렌족들은 미얀마의 카렌족의 경우와 달리 국가에 대항하여 분리주의적인 운동을 벌이지 않고 태국 국가 체제내에서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Keyes et al., 1979; Delang et al., 2003).

카렌족과 버마족간의 종족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필자는 난민촌 거주 카렌족들로부터 카렌족과 버마족과의 갈등이 미얀마에 이주해올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카렌족들은 그들이 현재의 미얀마라고 일컬어지는 땅에 기원전 739년경 몽골, 티벳, 운남을 거쳐 들어왔다고 한다. 그들은 미얀마에 들어온 최초의 종족으로 그들의 뒤를 이어 몬족, 버마족 등이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은 카렌민족주의에 의거하여 쓰인 역사책(예, Saw Aung Hla, 1931; Lonsdale, n.d.)으로부터 영향 받은 바 크다. 카렌족들에 따르면, 카렌족보다 뒤에 들어온 버마족들은 그들을 원거주지로부터 몰아냈다고 한다. 카렌족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거주지를 새롭게 조성하면 버마족들이 곧이어 따라와서 또다시 그들을 몰아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탄압의 역사가 버마족 중심의 전통 왕조 시대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카렌족들은 굴종의 역사를 살아왔는데, 영국이 19세기에 미얀마를 식민통치하면서⁵ 비로소 이러한 속박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렌족들의 이러한 내러티브는 현재의 종족 갈등을 영속화하여 과거에 투영시킨 것으로 보이며 학자들의 전근대 시기의 종족 갈등 역사에 대한 견해와 다르다. 리버만(Lieberman, 1978, 1984: 218-219)은 전근대 시기, 특히 18세기에 미얀마 내륙(잉와, Ava)에 위치한 버마족 왕조와 몬족 중심

5. 영국은 세 차례에 걸친 식민 전쟁(1824-26, 1852, 1885)을 통해 미얀마(버마)를 식민지화했다.

의 남부(버고, Pegu) 사이의 갈등은 종족적 갈등이라기보다 지역적 갈등이라고 했다. 즉 따웅우(Toungoo) 왕조 및 그 뒤를 이은 콘바웅(Konbaung) 왕조에 대항하여 남부의 지역민들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주류 반란민은 몬족이었으나 여러 종족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으며 반란군의 지도자는 카렌족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내륙 왕조의 위임을 받아 남부지역을 통치했던 버마족 총독이 내륙의 자기 종족인 버마 왕조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이다.⁶

위에서 보듯이 비록 카렌족들이 경험한 전근대 시기의 갈등은 종족 갈등이라기보다 지역 갈등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영국이 식민 통치를 시작한 시기(1820년대 이후)부터 종족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영국은 ‘분리통치’(Divide and Rule) 정책으로 버마족과 소수 종족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온순한’ 카렌족은 영국에 의해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버마족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반식민주의 반란운동을 제압하는데 용병으로 고용되기도 했다. 영국 식민지시기에 많은 카렌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서구식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카렌족 엘리트들은 버마족 젊은 엘리트들이 내세운 버마민족주의에 대응하여 카렌족 민족주의를 개진했다.

식민지시기에 악화되었던 버마족과 카렌족간 갈등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거치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일본이 미얀마를 장악했을 때, 일본 측에 가담한 버마족들에 의해 수천 명의 카렌족 사람들이 영국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Smith, 1994: 43-44). 카렌족들은 현재까지 여전히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증오의 감정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를 겪은 난민촌 거주 노년층의 사람들은 생생하게 버마족의 잔학상을 기억하고, 젊은 세대에게 그들이 겪은 고난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음을 필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

카렌족과 버마족의 상호 불신은 미얀마의 독립과정에서 더욱더 깊어졌다.

6. 버고의 주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따웅우 왕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뒤이어 등장한 알라웅파야(Alaungpaya)의 콘바웅 왕조의 군대에 의해 패퇴되고 피난처를 찾아 시암으로 이주를 했다(Hall, 1981: 402-403; Harvey, 1967: 196-198)

독립적인 카렌주를 세우기 위하여 소바우지(Saw Ba U Gyi)를 리더로 하는 정치조직인 KNU를 1947년 2월에 설립했다(Lintner, 1994: 8-9). KNU는 독립카렌주 설립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49년 1월 군사 반란운동을 전개했다. 1949년 6월에 KNU는 기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뜻을 가진 ‘꼬뿔레’(Kawthoolei)라는 이름으로 카렌족 자치국이 설립되었음을 세계에 선포했다(Smith, 1994: 44). 비록 반란운동 초기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며 승리를 거의 눈앞에 두었지만, 점차 점령지를 잃어가며 결국에는 태국 인근의 국경지역으로 쫓기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 KNU는 거대한 규모의 ‘해방구’를 400마일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세우고, 거기에 학교, 병원, 여타 행정 기구들을 설립하며 유사 국가체제를 운영했다. 더욱이 KNU 영토 내에서 거대하게 운영되었던 블랙마켓과 국경무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KNU는 재정적인 안정을 구가했으며 여러 종류의 무기를 구입하여 군사력을 증진시켰다.

앞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계절적으로 미얀마 정부는 건기에 KNU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우기에 물러서는 형태의 전투를 전개해왔다. 이에 따라 건기와 우기에 걸쳐 카렌주와 태국을 오가는 카렌족들의 계절적인 이주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 이르자 미얀마군의 공격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다. 1984년 건기에 이루어진 미얀마군의 공격으로 1만여 명의 카렌족들이 피난처를 찾아 태국으로 넘어왔지만, 미얀마군은 그 점령지에서 우기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국 땅에 난민으로 그대로 눌러 앉게 된 것이다(TBBC, 2005: 54). 이후 10년 동안 건기 때 이루어지는 미얀마군의 공격은 강도를 더해갔고 KNU의 주요 근거지를 압박하며 그들의 물자 보급로를 차단해 나갔다. 그 결과 1994년에 이르러서는 카렌족 난민의 숫자가 8만 명으로까지 증가했다(TBBC, 2005: 54).

카렌족 반란 운동의 역사에서 1995년은 가장 극적인 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해 1월 27일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KNU뿐만 아니라 여타 반정부 세력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수도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마네플로(Manerplaw)가 미얀마군의 손에 넘어갔고, 2월 8일에는 난공불락의 핵심 요새였던 고무라(Kawmoora) 역시 미얀마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KNU가 주요

요새를 잃게 된 요인으로 내부 분열을 들 수 있는데, 기독교도 중심의 KNU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일부의 불교도 카렌족이 ‘민주불교카렌연합’(Democratic Karen Burma Association)을 조직하고 미얀마 정부군에 협력하여 KNU의 주요 근거지를 함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얀마 정부는 독립 이후 처음으로 태국 쪽의 매솿(Mae Sot)과 미얀마쪽의 미아위디(Myawady)의 주변의 국경통과지역을 손아귀에 넣게 되었다(Lintner, 1995: 72).

계속되는 미얀마 군대의 거침없는 공격에 수많은 카렌족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난민이 되어 태국으로 넘어왔다. 이 이후에 대부분의 근거지를 빼앗긴 KNU는 게릴라식 전투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카렌주에 남아 있는 카렌족들은 정부의 국경개발 정책과 반란운동 세력과의 연계를 막기 위한 재이주 정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내부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 되거나 새로운 삶을 찾아 계속적으로 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III. “흩어졌으나 연결된”: 난민촌 간의 연계

카렌족 난민들이 태국으로 넘어오자 이들을 수용하는 난민촌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에 건립되었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117,916명의 카렌족 난민들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에 설립된 7개의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 중 74,797명이 딱(Tak) 지방에 있는 3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고, 30,604명이 매홍손⁷(Mae Hong Son) 지방에 있는 2개의 난민촌에, 4,537명이 칸짜나부리(Kanchanaburi)에 있는 1개의 난민촌에, 그리고 7,978명이 랏차부리(Ratchaburi)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카렌족 이외에 까야(Kayah)족 난민들은 22,979명, 샨(Shan)족 난민은 713명, 몬(Mon)족 난민은 11,711명이다. 총 153,319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에 걸쳐 형성된 난민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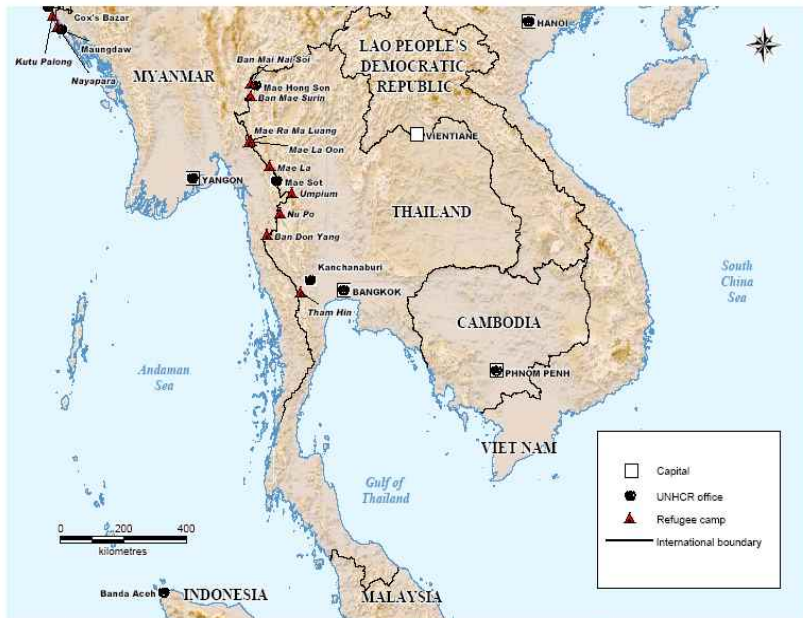
7. 원어 발음은 ‘매홍썸’과 가까우나 국내에 많이 알려진 대로 표기했다.

<표 1> 난민숫자(2007년 12월 기준)

분류	지방	난민촌명	난민숫자
카렌난민촌	매홍손	매라운	15,321
		매라마루앙	15,283
	딱	멜라	40,760
		움뻐압마이	18,456
		누포	15,581
	간짜나부리	반동양	4,537
	랏차부리	탐힘	7,978
소계			117,916
까야난민촌	매홍손	반콰이	19,326
		반매수린	3,653
	소계		
산족난민촌	치앙마이	위영행	713
몬족재정착지	몬주/다웨주(미안마)		11,711
총계			153,319

자료: TBBC(2007: 3)

<지도> 난민촌 위치



자료: UNHCR 웹사이트(<http://www.unhcr.org>)

과 재정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TBBC, 2007).

지도에서 보듯이 난민촌들은 매홍손에서 깐짜나부리까지 이어지는 국경을 따라 산재해 있다. 이들은 지리적 연결성 없이 마치 섬처럼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난민촌간에 연계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태국 정부가 국경과 난민촌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레토릭은 이런 견해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태국 당국은 난민촌 주변을 감시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난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하에서 국경지역에 걸쳐 있는 난민촌들은 다음과 같은 연결고리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첫째, 구호물자 분배체계를 들 수 있다. 난민발생 초기시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카렌족난민지도자들은 ‘카렌난민위원회’(KRC, Karen Refugee Committee)를 설립하여 난민촌에 분배되는 구호물자에 관여하고 있다. 물론 국제구호기구들이 구호물자의 획득을 담당하고 있지만, KRC는 그 물자가 난민촌으로 전달되고 난민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회장, 부회장, 재정 담당 등 15명의 위원들⁸에 의해서 운영되는 KRC는 매순간에 그 본부를 두면서 각 난민촌에 조직되어 있는 난민촌위원회를 관리감독하면서 구호물자 전달과 분배에 관여하고 있다.

KNU가 미얀마내의 카렌족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으로 활동해온 반면, KRC는 태국내의 난민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카렌족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KRC는 카렌민족주의 운동과 관련이 없는 비정치적인 조직이며 KNU와 별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KNU에 영향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KRC 위원들 중에 과거 KNU의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있으며, 현재도 KNU 원로들은 KRC의 활동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언을 하고 있다. 비록 난민들은 태국 땅으로 옮겨 오면서 그들의 그들을 대표하는 명목상의 정치조직을 상실했지만, 난민촌내

8. 필자는 KRC의 부회장과 여러 번 만남을 가지며 이 조직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독립카렌주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Burma and Karens(1928년간)*이라는 저술로 카렌민족주의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San C. Po의 손자였다.

에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표 조직을 갖게 된 것이다. KRC는 복지 중심의 조직이지만, 태국 당국과 협력하여 난민촌 행정도 관여를 하는 등 실제로 난민들에게 있어서 정부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구호물자분배는 중앙통제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모든 난민촌은 KRC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모든 난민은 똑같은 종류와 양의 물자를 공급받는다. 이와 같은 구호분배는 난민들에게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킨다. KRC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구호물자분배의 과정 속에 난민들은 개별 난민촌을 넘어서 타 난민촌 거주 난민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난민촌 내에서 경작할 토지가 매우 협소하고 여타의 생산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난민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구호식량에 의존해 있다. 따라서 그들은 구호식량을 공급하는 국제구호기구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난민들이 국제구호기구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KNU의 은덕 때문이라고 여긴다. 엔지오의 지원으로 그러한 구호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만 KNU의 지원 없이는 구호물자분배가 차질을 빚으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난민들은 간주한다. 한 카렌족 난민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KNU가 없었다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영토 중심의 카렌민족주의는 비록 약화되었지만, 난

<표 2> 구호식량 종류와 양(매달 1인 기준)

종류	양
쌀	15kg(5세 이후) / 7.5kg(5세 미만)
밀가루	0.50kg(5세 이후) / 1kg(5세 미만)
어육페이스트(Fishpaste)	0.75kg
소금	330gm
녹두	1kg(5세 이후) / 500gm(5세 미만)
식용유	1리터(5세 이후) / 500ml(5세 미만)
마른 고추	40gm
설탕	125gm(5세 이후) / 250gm(5세 미만)

자료: TBBC(2008: 11)

민촌이라는 공간에서 KNU의 대표성과 지도력은 결코 약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호물품 분배체계는 난민촌간을 묶는 유사 행정체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카렌족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민족주의 운동의 기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호물품으로 인한 난민촌간 연계성은 카렌족들이 난민이 되기 이전에 반란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졌던 공동체주의적 감정 또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이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교육제도가 흩어져 있는 난민촌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난민촌 내의 거의 모든 학교는 같은 교육제도 하에 운영된다. 외국 교육 엔지오가 난민촌의 교육에 관여되어 있지만, KNU의 하위 부처중 하나인 ‘카렌교육부’(KED, Karen Education Department)가 주로 난민촌의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가르치는 교과목은 표준화되어 있으며 가르치는 언어 역시 ‘스고 카렌어’로 통일되어 있다. 각각의 난민촌에 학교의 교장들과 난민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 KED와 학교 운영에 대해 협력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난민촌 교육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별 난민촌이나 인근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다(Lee, 2001: 65; ZOA, 2002: 12).

흥미롭게도 이 교육 체계는 KNU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일부 미얀마 카렌주내의 학교에도 적용이 된다. 일년 중 한두 번 카렌주의 교사들이 KED나 교육 엔지오에서 주관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오기도 한다. 때때로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KED 교육활동가들이나 교육 엔지오 활동가들이 국경을 넘어 미얀마 카렌주로 가서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학용품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미얀마 영토내에서 KED의 교육적 지도 아래 놓여 있는 학교수는 무려 900개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South, 2007: 71). 이처럼 교육을 통한 연계는 난민촌간뿐만 아니라 국경 너머 카렌주까지 뻗어 있다.

셋째, 교회가 난민촌간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난민촌내의 많은 교회들이 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카렌주에서 설립되어 운영되었었는데, 여전히 예전의 교회 이름을 태국의 난민촌에서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움뻐얌마이난민촌의 ‘고무라 교회’, 땄라난민촌의 ‘티거니 교회’는 난민촌

내에서도 수백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 속하는데, 이미 카렌주에서 설립된 이 교회들은 태국으로 넘어와서도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난민촌내 주요 기독교 단체인 ‘꼬틀레카렌침례교’(KKBC, Kawthoolei Karen Baptist Church)는 난민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아우르는 교단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난민들은 성경공부나 선교활동 등을 위해서 다른 난민촌을 종종 방문한다. 태국 당국이 난민들의 종교 활동에 관해서 그리 심한 간섭을 하지 않은 것도 종교적 활동을 통한 난민촌간 연계가 비교적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에서 난민촌의 교육을 통해서 보았듯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계는 난민촌 자체 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태국으로 넘어오기 이전과 비교하여 국경지역에서 미얀마 카렌족과 태국 카렌족과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태국 카렌족 교회가 난민촌에서 열리는 교회 활동에 종종 참여하고 있으며 난민촌의 카렌족들은 난민촌 주변의 태국 카렌족 마을 교회에 방문하여 태국 카렌족 기독교인들과 연합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미얀마 카렌족 난민 사태는 태국 카렌족과의 종족적, 종교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난민촌 교회들은 여전히 미얀마 내에 있는 교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난민촌내 교회들은 미얀마내로 선교활동 팀들을 파견하기도 하며 카렌주나 양곤에 있는 교회들은 종종 난민촌 교회를 방문하여 연합활동을 하기도 한다.

카렌족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민족주의 운동과 교회 활동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난민발생 이전에도 교회는 카렌 민족주의 운동의 기반이 되었는데(Keyes, 1977; Rajah, 1990, 2002), 난민촌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여러 난민촌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난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난민촌 교회지도자들의 설교 속에 고난과 역경을 같이 당하고 있는 운명공동체로서의 카렌족이 설교 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내용의 학습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넷째, 개별 난민들의 가족간 유대는 난민촌간 연계를 강화한다. 많은 카렌족들이 난민이 되어 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족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태국 당국이 난민촌을 재편하고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이 다른 난민촌으로 옮겨가거나, 태국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하고 엔지오 활동을 하면서 떨어져 사는 가족들도 많아졌다. 특히 젊은 난민들은 다른 난민촌보다 교육이나 경제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맬라난민촌이나 인근 도시인 매숫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난민들은 비록 신체이동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가족과 끈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난민들은, KRC, 교회, 국제구호기구 등이 타난민촌을 차량으로 방문할 때 동승하기도 하며, 태국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난민촌을 방문하기도 한다. 난민들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 가족 구성원과 편지와 돈을 주고 받으며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은 난민들 간 그리고 난민촌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필자는 난민촌에서 난민들이 이동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인근 도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였다. 난민들은 난민촌 주변의 매숫과 같은 도시에서 비교적 쉽게 이동전화를 구입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편하게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매숫에 있는 인터넷 카페, 엔지오 사무실, 태국인이나 외국인 친구의 거주지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대부분의 난민촌이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지만, 도시 난민들과 비교적 평지에 위치해 있는 맬라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은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바깥 세상과의 연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또한 주요 근거지를 상실한 이후 국경지역에서 게릴라식 전투를 벌이는 KNU의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Sharples, 2008: 24).

IV. 난민촌과 도시의 연계

앞에서 각각의 난민촌이 여러 연결고리로 서로 엮여있음을 밝혔는데, 이

장에서는 중심 난민촌인 맬라난민촌과 국경지역의 주요 도시인 매솿이 난민촌들을 연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맬라난민촌은 태국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국경도시인 매솿으로부터 62km 떨어져 있다. 맬라난민촌 주변 도로가 비교적 잘 닦여져 있어 자동차로 가면 1시간 이내에 충분히 매솿에서 맬라난민촌에 도달할 수 있다. 1989년에 이 난민촌이 설립될 당시 불과 소수의 가족만이 거주하였으나, 태국 정부가 난민촌 합병 정책을 이후에 추진함에 따라 타난민촌 거주 난민들이 옮겨와 살게 되고, 그간 미얀마에서 새로운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2007년 말에는 45,000명의 난민들이 거주하는 최대 난민촌이 되었다.⁹

맬라난민촌이 매솿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매솿에 위치에 있는 UNHCR, 엔지오, 태국내무부 등의 난민 관련 외부 기관들이 KRC, 난민촌 위원회와 등 난민관련 카렌족 조직들과 이 난민촌에서 회합을 자주 가진다. 이들 기관들에게 맬라난민촌은 난민에 대한 정책을 협의하고 입안하는 데 있어서 중심 난민촌이다.

맬라난민촌은 비교적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난민촌의 난민들이 이곳에 와서 그러한 기회들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이후의 프로그램으로 난민촌에서 대학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급학습과정’(Further Studies Program)이나 신학교 등의 고등 교육과정에 다른 난민촌에서 온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인근 마을의 태국인들과 미얀마 내지의 사람들까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곳에 들어오기도 한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등의 의료 엔지오가 맬라난민촌에서 상대적으로 대형 규모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난민촌 거주 난민들 뿐만 아니라 태국지역민들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맬라난민촌에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장소라고 여겨지는데, 이는 KNU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KNU의 여러

9. 태국 정부의 난민촌 합병 정책은 난민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미얀마군과 DKBA가 1990년대 중반과 후반에 난민촌에 침입하여 방화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난민촌의 통폐합과 그에 따른 난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Bowles(1998)와 Thompson(2008) 참조.

정치 전략들이 이곳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큰 규모의 종교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난민촌간 연합종교활동이 주로 멜라난민촌에서 개최된다.

난민들 스스로도 멜라난민촌이 일종의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개별 외국인들이나 난민과 관련된 외국 기관들이 종종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더욱더 강화된다. 난민이 되기 전 미얀마 카렌주에서 외국인들을 거의 보지 못했었던 카렌족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외국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외국인들의 잦은 출몰은 난민들에게 그들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멜라난민촌이 여러 난민촌에서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매솿은 난민촌 외부에서 난민들에게 또다른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 국경 마을에 불과했던 매솿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블랙마켓을 기반으로 성장했다(Lee, 2007: 53-61). 매솿은 1980년대 후반에 미얀마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짐에 따라 미얀마인들이 대거 이주해오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이주의 물결은 이어지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매솿에는 20만 명의 미얀마인들과 10만 명의 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7: 79).

1990년대 초반부터 매솿 주변에는 저렴한 미얀마이주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방콕이나 치앙마이 등지에 있던 공장들이 대거 이곳으로 이주해 왔는데 최근에 매솿 주변에 있는 공장들의 숫자는 250여 개에 이른다. 매솿 시내 중심지에서는 보석업, 무역업을 중심으로 상업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미얀마에서 온 보석 상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풍경이 매솿 시내에서 일상적으로 펼쳐진다. 매솿은 관광업도 발전하고 있는데, 매솿 주변의 수려한 자연 풍광과 국경지역의 혼성 문화 등이 내지의 태국 사람들을 더욱더 이곳으로 이끌고 있다. 태국 정부는 매솿을 미얀마 시장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하고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Arnold, 2006; Tsuneishi, 2005).

매솿은 UNHCR이나 난민 관련 국제구호기구들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도

시이다. 이 도시 주변에 세 개의 난민촌이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난민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난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솟은 세 개의 난민촌의 지리적 중심지가 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UNHCR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제구호기구들은 매솟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솟은 난민에 관련된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도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 난민 교육에 관여하는 KED, KRC, 국제교육 엔지오 등의 기관들은 매솟에서 협의를 가지며 학교 교과서 개정 작업, 교사 연수 등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한 개별 외국인, 각종 외국 엔지오,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회화 프로그램, 인권 프로그램 등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난민촌과 국경너머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인다. 가령, 매솟 인근의 매빠 마을에는 30여 명의 난민들이 외국 엔지오들과 ‘카렌청년회’(Karen Youth Organization)가 운영하는 ‘카렌청년리더십경영연수센터’(Karen Youth Leadership and Management Training Center)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또한 매솟 주변에 있는 ‘신디아클리닉’(Cynthia Clinic)¹⁰에서도 수백 명의 난민 학생들이 의료 교육을 받고 있었다. 젊은 난민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통해 매솟에 머물면서 난민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도시적인 삶을 경험하기도 한다.

매솟에 있는 종교 기관들도 난민들을 끌어들이는 구실을 한다. 필자는 난민촌에서 거주하던 기독교인 난민들이 매솟의 카렌족 교회에서 주관하는 종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매솟을 방문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 교회는 미얀마내의 카렌족 기독교인들이 태국 거주 난민들과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데에도 중요한 연계의 역할을 한다.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이 종교활동을 위해 난민촌을 방문하려고 할 때 이 교회를 중간 기착지로 삼고 있었다. 필

10. 이 병원의 설립자인 신디아 의사는 ‘88 항쟁’을 겪고 태국으로 넘어온 뒤 1989년에 이 병원을 설립했다. 신디아 의사의 인도주의적 실천은 국제적으로 알려졌으며, 2002년에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병원은 하루에 200~250명가량의 미얀마 환자를 치료하고 5~6명의 아이를 출생시킨다. 환자들의 2/3는 매솟과 그 주변으로부터 오는 이주민들이고, 1/3은 미얀마 내 국경 도시인 미아워디로부터 온 미얀마 사람들이다. 이 병원은 외국 기관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이곳에서 치료되지만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은 태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인터뷰, 신디아 의사, 2004. 12. 8/9).

자는 양곤 인세인(Insein)의 한 교회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움뻐암마이난민촌을 오갈 때 이 교회에서 머무는 것을 보았다.

매솏의 이슬람 사원도 난민들이 이 도시로 끌어들인다. 필자가 어느날 버스(송테오)를 타고 난민촌에서 매솏으로 돌아올 때 한 무슬림 난민여인이 필자 옆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녀의 행선지를 묻자 매솏의 모스크로 가는 중이며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무를 예정이라고 했다. 그 무슬림 난민 여인처럼 난민촌에 거주하는 많은 무슬림들은 매솏에 거주하는 무슬림들과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원래 무슬림들은 미얀마 카렌주에 카렌족들과 더불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카렌족과 더불어 미얀마 정부군의 공격을 피해 피난처를 찾아 태국으로 넘어와 난민촌에 거주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태국 정부가 난민촌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다른 난민촌으로 옮겨가지 않고 매솏으로 옮겨왔다. 그들은 매솏에서 모스크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난민촌에 남아 있는 무슬림들 역시 난민촌내에서 카렌족과 달리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의 무슬림과 난민촌의 무슬림은 상업으로 생계를 추구하면서 각 별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비단 무슬림뿐만 아니라 일반 카렌 난민들도 난민촌으로부터 나와서 매솏에 있는 상점, 공장 등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난민들은 난민촌과 매솏간을 오가는 상행위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한다. 그들중 일부는 장사에 수완을 보여 큰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물론 난민들이 아무 제약 없이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일하는 데 ‘고용허가’(Work Permit)증이 필요하지만, 1년 용에 4천¹¹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 허가증을 획득하는 것이 난민들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대부분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그들은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고용주에게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난민들은, 특히 젊은 난민들은 난민촌에서 하릴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무료함과 싸우는 것보다 여러 어려움에 부

11.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1달러는 35¹¹ 정도이다.

뒤틀려도 바깥세상으로 나와서 일하기를 선호한다. 수많은 불법 미안마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매솓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두드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난민들이 매솓으로 나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매솓의 경제는 이러한 이주민, 난민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렇게 난민촌은 도시에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풀(pool)이 되어 가고 있다.

난민촌 내에서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로의 생계형 이주는 계속되고 있다. 난민촌 내에서 자족적인 경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난민 관련 엔지오들의 연합조직인 ‘태국거주 이주민 구호를 위한 협력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Services to Displaced Persons in Thailand)는 태국 내무부에 난민들이 난민촌내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오직 팔라난민촌 내에서 오토바이 수리점 같은 제한된 업종에서 소규모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을 했다.¹² 기본적으로 태국 당국은 난민촌이 자족적인 공간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 난민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난민촌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난민들이 미안마이든지, 제3국이든지 자국을 떠나는 것이다.

매솓은 난민들에게 고향에서의 전통적인 삶, 난민촌에서의 공동체적인 삶과는 다른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난민들은 매솓이라는 창을 통해 외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매솓을 둘러다보면 요즘의 정보통신 문명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곳곳에 이동전화 판매하는 상점들이 위치해 있고, 시내중심지에 있는 인터넷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디브이디(DVD) 대여점 역시 손님들로 가득 찬다. 대부분 빈곤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은 이러한 정보통신 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의 흐름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매솓에서는 소비문화도 현대적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다국적 회사의 대형마트가 이곳까지 진출해 있고 여러 지역 상점들도 대형화하는 추세이다. 필자 주변의 난민들은 현

12. 필자는 2005년 6월 8일 방콕에서 열린 CCSDPT 모임에 참석하여 이 내용을 청취했다.

대화되고 깔끔한 상점들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곳에 자주 구경 가는 것을 좋아했다. 매솓으로 나오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이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이다.

이처럼 매솓은 상대적으로 격리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열린 세계로 인도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난민들이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이라든지 현대적 형태의 소비들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난민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난민들이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국경 도시가 난민들과 변화하는 세계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V. 초국가적 연계

앞에서 필자는 난민촌과 매솓이 국경을 넘어 카렌주나 양곤 등의 미얀마의 지역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설명했다. 국경을 초월하는 이러한 관계는 비단 태국과 미얀마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까지 뻗어나간다. 여러 해외 카렌족 공동체들이 난민촌과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는 싱가포르에 있는 카렌족 공동체가 일년에 수차례 난민촌을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이 공동체는 맬라난민촌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난민촌의 학교, 교회 등의 건립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카렌족 공동체들이 거의 매년 난민촌을 방문하면서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난민촌에 남아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KNU에게도 일정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해외 카렌족 공동체들은 난민 가족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한 동정심과 그들만이 비교적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빗진 마음에서 난민촌을 돕는 활동을 조직한다. 필자는 싱가포르에 있는 카렌족 공동체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 모임에서 종종 동료 난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공유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이 조직되는 것을 종종 목격

<표 3> 제3국으로 재정착된 난민들의 숫자(2007. 1~12)

난민촌 \ 국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기타	합계
방콕	19		4		7	14		6		25		75
Site 1	97	9		345		4	10	7		1		473
Site 2	38											38
멜라운	24	803		2		1	3			1		834
메라마루앙	14	722				2						738
멜라	810	15			1	148	30		24	8,136		9,164
움베암마이	217	20				143	30		45	24		479
누포	127	5	1	1	3	99	55	18	42	22		373
반동양	33				51	1	16	147		14	97	359
탐침	137			2		2	4			1,958		2,103
계	1,516	1,574	5	350	62	414	148	178	111	10,181	97	14,636

자료: TBBC(2008: 4)

했다.

난민촌과 제3세계의 연계는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카렌 난민들이 해외에 정착하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2007년도에 제3국으로 재정착된 카렌족을 비롯한 미얀마 난민들의 숫자는 14,636명이고 2008년에는 20,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Banki and Lang, 2008: 42). 미얀마 난민이 총 15만명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로 재정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와 가깝게 지내던 난민들 중에도 많은 수가 이미 해외에 정착했거나 정착할 예정에 있다. 필자가 곧 해외로 이주하는 난민에게 그곳에 살면서도 국경에 남아 있는 카렌족들을 돕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하지요, 저는 이곳에 돌아와 내 민족을 도울 겁니다”라는 확신에 찬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재정착되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떠날 당시에 충만한 박애주의적 감정을 갖고 떠난다. 이러한 확신의 실현성 여부를 떠나, 그러한 언급에서 적어도 해외 이주 카렌족들이 국경 지역에 남아 있는 카렌족들을 돕고자 하는 일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카렌족들이 해외로 재정착을 할 때 보통 기존에 카렌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가령 미국의 카렌족들은 미네소타주와 캘리포니

이주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 신규 재정착 카렌족들은 이들 지역에서 교회 중심의 카렌족 공동체에 속하며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 이들 공동체들은 새로 이주해온 카렌족 사람들이 수용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와준다. 또한 2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령 싱가포르 카렌족 공동체는 아이들을 위한 ‘카렌어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기도 한다.

해외 거주 카렌족들은 카렌족 디아스포라와 카렌족 난민들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을 조직해 나가기도 했다. 난민들이 해외에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이 모임이 조직되었는데 이러한 범 카렌족 연합 활동은 카렌족이 해외로 점점 더 이주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렌족 난민들이 외국인들과 이루어가는 연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카렌족은 미얀마에 거주할 때 외국인과 조우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일상적으로 외국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필자 역시 난민촌에 거주하면서 엔지오 활동가, 언론인, 종교인, 인권운동가, 의료 봉사단 등 각계각층의 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난민촌에 출몰하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공간이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열려 있었다. 물론 외국인이 찾아오는 빈도는 난민촌과 난민부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멜라난민촌과 기독교인 난민들이 외국인 손님을 상대적으로 많이 맞이한다.

난민촌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주류는 서양백인들인데, 이들은 인권옹호 활동 차원에서 난민촌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난민촌에서 연설이나 강연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인권을 무시하는 미얀마 군사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난민들의 정치의식은 이러한 서양인들에 의해 강화되는 측면이 크다. 또한 서구 인권단체들은 난민촌 활동을 하면서 보편적 인권 옹호 차원에서 어린이 인권, 여성의 인권 등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느 한 원로 난민은 이러한 보편적 인권 옹호 활동이 옳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사회 규범을 유지하고 있는 카렌족 사회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토로했다. 그는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루기도 해야 하는데, 서구 엔지

오에서 그렇게 하지 말기를 권고하다보니,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부권 중심의 카렌족의 전통적인 인간관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카렌족들은 서양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카렌족 난민들은 서양인들과 엔지오 등에서 함께 일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경험하고 그러한 조직 운영 원리를 카렌족 자체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도 적용하려고 한다. 가령 매솟에 있는 카렌족 교회에서 서구 엔지오에서 일하는 어느 한 카렌족 사람은 교회운영을 개선한다면서 시간 약속 철저, 일처리의 문서화, 태스크포스 형태의 조직 운영 등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고, 결국에는 기존의 운영 방식도 바뀌지 않은 결과가 빚어졌다.

서구백인들의 난민촌 활동과 비해서 미약하지만 아시아인의 영향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맬라난민촌의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신학과정이 인도 동북부의 나가(Naga) 지역의 신학교에서 온 나가족 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일부 카렌족 난민 학생들은 나가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한다. 필자는 매솟에서 출발하여 태국-미얀마 국경, 미얀마 중부, 미얀마-인도 국경을 육로로 통과하여 나가 지역에 당도하는 그들의 초국가적인 학습여정을 경이롭게 경청했었다. 한편, 매솟에서는 일본인 자원 봉사자가 영어와 사회과학 과목들을 교육하는 ‘평화 교육센터’(Peace Educ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 센터는 난민촌내의 카렌 학생들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가르친 뒤에 우수 학생들은 치앙마이 등지에서 난민 학생들을 위한 정규 대학 과정을 밟을 수 있고 일부 졸업생들은 난민촌내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한다. 한국인들의 난민촌 관련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다. 어느 한 한국의 의료봉사단체는 1990년대 초부터 매년 맬라난민촌에서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계에서 아시아 교회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로부터 온 수많은 교회단체들이 난민들과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불교, 이슬람 등 타종교의 활발한 연계가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이러한 교회조직들의 방문은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다. 이

결과 기독교 카렌족들이 다른 종교의 카렌족들보다 의료, 의복 등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난민촌 행정 관련 기관이나 엔지오도 종교에 따라 난민 간에 복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기독교 카렌족들의 초국가적인 연대에 대한 통제와 규율이 쉽지 않아 종교의 차이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개별 난민의 차원에서 외국인과의 관계는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외국인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어떤 난민들은 엔지오 등과 같은 조직체에서 일자리를 얻기도 하며 외국인 가정집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하기도 한다. 어떤 난민들은 이러한 ‘ 끈 ’을 이용해 태국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영원히 난민촌에서 벗어나 제3국으로 떠나기도 한다.

해외 언론의 역할도 난민촌과 외부 세계의 연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해외 언론에 오랫동안 주목을 받으면서 민주화 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경지역 및 난민촌 역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취재 활동이 제약을 받는 미얀마 대신 그런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태국 국경 지역 및 난민촌을 방문하여 그곳에서의 민주화 운동과 난민들의 절고를 보도한다. 필자는 난민촌에서 많은 언론 종사자들이 취재 목적으로 난민촌을 방문한 것을 목격했었는데, 이들로 인해 난민촌이 바깥 세계에 널리 알려진 측면이 있는 반면, 고난과 역경에 대해 과도하게 주목하고 난민들을 피해자적인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어 난민의 총체적인 삶이 드러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일부 난민 지도자들은 해외 언론을 활용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가령 해외 언론이 ‘뺏을 때’ 카메라에 찍히기 용이하도록 정치적인 구호나 난민에 대한 지원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거나 인권관련 행위를 연출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난민 옹호 활동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카렌족들과 미얀마 인권운동가들은 외국인들과 협조를 통하여 주요 웹사이트¹³를 운영하면서 난민과 국경 상황에 관련된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실제로 개별

13. 대표적으로 <http://www.khrg.org>, <http://www.irrawaddy.com> 등이 있다.

외국인들과 인권단체들이 난민촌을 찾아오기도 한다. 바깥 세계와 카렌족간의 연계는 이처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으로도 강화되고 있다.

VI. 결론

이 글은 카렌족 난민이 외부와 만들어가는 연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카렌족 난민들은 미얀마 정부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인해 원거주지를 떠나 여러 난민촌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구호물자분배체계, 교육체계, 교회 활동, 가족간 연계, 정보통신 기술 등을 통해 국경 지역의 난민촌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이 연구는 밝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계에서 맬라난민촌이 난민촌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인접 도시인 매솟은 경제활동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난민들을 바깥세상으로 이끌어내고 이들에게 외부 세계의 흐름을 엿보도록 하는 창의 역할을 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맬라난민촌과 매솟은 지리적으로 핵심에 위치하면서 방사형과 유사한 형태로 난민촌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난민을 둘러싼 연계가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을 벗어나 해외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해외 거주 카렌족 공동체와 외국인들이 이러한 연계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

이 연구는 서두에 기존에 난민에 관한 연구에서 보이는 두 가지 태도를 비판했다. 즉 난민을 난민촌에만 한정하여 보려는 태도와 난민을 인도주의 입장에서만 보려는 태도는 난민들을 수동적인 존재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과 달리 이 연구는 카렌족이 외부 세계와 만들어나가는 연계를 통하여 난민들의 적극적인 삶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카렌족 난민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계는 난민의 이동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난민들은 늘 한 곳의 지리적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생계 수단을 찾아 그들은 도시 지역으로 흘러 나왔다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시 난민촌으로 들어가고 국경을 넘어 미얀마에 가기도 하고 외국인들과 초국가적인 연계를

맺기도 한다. 세계화론자들이 언급하듯이 난민의 이러한 이동성은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탄력적인 정체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난민의 이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국가간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정체들의 영향력이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의 연계와 이동성은 세계화 시대에 발생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기 동안 내려온 이주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문명 기술, 엔지오 등의 외부행위자들이 개입은 그러한 역사적인 이주와 연계에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카렌족 난민들이 이루어가는 연계가 그들의 공동체의식 또는 민족주의 의식을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카렌족 난민 사태는 KNU의 군사력과 통치력의 약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카렌민족주의 운동도 난민사태 이후에 약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보듯이 난민 사태는 민족주의 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배태시켰다. 영토 기반의 고전적인 민족주의 활동은 분명 약화되었지만, 첸(Chen, 1998)이 언급한대로 비영토적(non-territorial)인 기반의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이 펼쳐졌다. 여기에서 난민촌은 민족주의 운동의 새로운 도메인이 되었고, 난민촌 운영은 중앙집권적인 구호물자 분배에서 보듯이 주권이나 영토 없이도 통치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구호기구 등 해외 세력과의 연대, 해외 거주 디아스포라 카렌족들의 후원들도 민족주의 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 학자들(Keyes, 1977; Rajah, 1990, 2002)이 카렌민족주의 운동의 도구로 주목한 학교와 교회 이외에 이러한 것들이 카렌민족주의 운동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서구 국가들과 UNHCR이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제 3국으로의 재정착 프로그램이 카렌민족주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카렌군인들조차 병영에서 뛰쳐나와 UNHCR 정문을 서성거리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민족주의적 의지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앞서서 먼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KNU의 병력을 동원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난민촌에서 지식인 및 지도자 그룹이 해외에 먼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경지역에서 카렌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동력이 부족한 실정에 처하게 됐다. 공동체를 위한 길이나, 개인을 위한 길이나에 대한 선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어느 한 카렌여성지도자는 필자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제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됐다. 가르치는 사람이 모두 빠져나가다 보니 이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돌을 부딪쳐 불을 만드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개탄했다.

물론 이러한 제 3국 재정착 프로그램은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카렌족들이 해외에 기반을 두면서 수용국 정부 및 엔지오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KNU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며, 국경에 있을 때보다는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KNU를 후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렌족의 초국가적 연계는 향후 카렌민족주의 운동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ppadurai, Arjun.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rnold, Dennis. 2006. *Capital Expansion and Migrant Workers: Flexible Labor in the Thai-Burma Border Economy*. Masters Thesis. Mahidol University.
- Banki, Susan and Hazel Lang. 2008. "Difficult to Remain: the Impact of Mass Resettlement." *Forced Migration Review* 30. pp. 42-44.
- Bowles, Edith. 1998. "From Village to Camp: Refugee Camp Life in Transition on the Thailand-Burma Border." *Forced Migration Review* 2. pp. 11-14.
- Chen, Christopher W. C. 1998. *Karen Power Domains and Networks: The Political Geography of Exile*. Honou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Decha Tangseefa. 2006. "Taking Flight in Condemned Grounds: Forcibly Displaced Karens and the Thai-Burmese In-Between Spaces." *Alternatives* 31. pp. 405-429.
- Delang, Caludio O. ed. 2003. *Living at the Edge of Thai Society: the Karen in the Highlands of Northern Thaila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 Grundy-Warr, Carl and Elaine W.S. Yin. 2002. "Geographies of Displacement: The Karenni and the Shan across the Myanmar-Thailand Border." *Singapore*

-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3(1). pp. 93-122.
- Gupta, Akhil and James Ferguson. 1997.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 in Critical Anthropolog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33-51.
- Hall, David. 1981. *A History of South-East Asia Fourth Edition*. Hampshir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lliday, R. 1913. "Immigration of the Mons into Siam." *Journal of the Siam Society* 10(3). pp. 1-13.
- Harvey, G.E. 1967. *History of Burma: From the Earliest Times to 10 March 1824, the Beginning of the English Conquest*. London: Cass.
- Keyes, Charles F. ed. 1979. *Ethnic Adaptation and Identity: The Karen on the Thai Frontier with Burma*. Philadelphia: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 Keyes, Charles F. 1977. *The Golden Peninsula: Culture and Adaptation in Mainland Southeast Asia*. New York: Macmillan.
- Lang, Hazel. 2002. *Fear and Sanctuary: Burmese Refugees in Thailand*.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 Lang, Hazel. 2001. "The Repatriation Predicament of Burmese Refugees in Thailand: A Preliminary Analysis." UNHCR Working Paper No. 46.
- Lee Sang Kook. 2007. *Integrating Others: A Study of a Border Social System in the Thailand-Burma Borderland*. PhD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Lee Sang Kook. 2001. *The Adaptation and Identities of the Karen Refugees: A Case Study of Mae La Refugee Camp in Northern Thailan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hman, Frederick K. 1981. "On the Vocabulary Semantics of 'Field' in Theravada Buddhist Society." In John P. Ferguson, ed. *Essays on Burma*. Leiden: E.J. Brill. pp. 101-111.
- Lieberman, Victor B. 1984. *Burmese Administrative Cycles: Anarchy and Conquest, c. 1580-176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eberman, Victor B. 1978. "Ethnic Politics in Eighteenth-Century Burma." *Modern Asian Studies* 12(3). pp. 455-482.
- Lintner, Bertil. 1995. "Recent Developments on the Thai-Burma Border." *IBRU Boundary and Security Bulletin* 3(1). pp. 72-76.
- Lintner, Bertil. 1994. *Burma in Revolt: Opium and Insurgency since 1948*. Bangkok: White Lotus.
- Lonsdale, Michael. n.d. *The Karen Revolution in Burma*. Singapore: Sam Art.
- Malkki, Liisa. 1996. "Speechless Emissaries: Refugees, Humanitarianism, and Dehistoricization." *Cultural Anthropology* 11(3). pp. 377-404.
- Ng, Angie L.S. 2000. *Wait, Hope and Fight: The Karen Refugees*. Honou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Oh Yoon Ah. 2003. *Ethnic Consciousness and Allegiance to the State: Weak State, Weak (Ethnic) Society and the Question of Dual Loyalties in Myanmar*. Maste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Phua, Alice S. K. 2000. *The Karenni Nationalist Movement: Contextu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 Honou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Rajah, Ananda. 2002. "A 'Nation of Intent' in Burma: Karen Ethno-nationalism, Nationalism and Narrations of Nation." *The Pacific Review* 15(4). pp. 517-537.
- Rajah, Ananda. 1990. "Ethnicity, Nationalism and the Nation-state: The Karen in Burma and Thailand." In Gehan Wijeyewardene, ed. *Ethnic Groups across National Boundaries in Mainland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p. 102-133.
- Renard, Ronald. 1986. "The Integration of Karens in Northern Thai Political Life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In Ronald D. Renard, ed. *Anuson Walter Vella*. Chiang Mai and Honolulu: Walter F. Vella Fund, Payap University and Southeast Asia Papers, Center for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pp. 229-248.
- San C. Po. 1928. *Burma and the Karens*. London: Elliot Stock.
- Saw Aung Hla. 1931. *The Karen History*. Yangon: n.p.
- Sharples, Rachel. 2008. "Technology in the Borderlands." *Forced Migration Review* 30. p. 24.
- Smith, Martin. 1999. *Burma: Insurgency and the Politics of Ethnicity*. London: Zed Books.
- Smith, Martin. 1994. *Ethnic Groups in Burma: Development, Democracy and Human Rights*. 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 South, Ashley. 2007. "Karen Nationalist Communities: The "Problem" of Divers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9(1). pp. 55-76.
- Tambiah, Stanley J. 1976. *World Conqueror and World Renounc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BBC (Thailand Burma Border Consortium). 2008. *Programme Report: January to June (Including 2009 Preliminary Budget)*.
- TBBC (Thailand Burma Border Consortium). 2007. *Relief Programme: July to December 2007 (Including Revised Funding Appeal for 2008)*.
- TBBC (Thailand Burma Border Consortium). 2005. *Relief Programme: July to December 2004 (Including Revised Funding Appeal for 2005)*.
- Thompson, Sally. 2008. "Community-Based Camp Management." *Forced Migration Review* 30. pp. 26-28.
- Thornton, Phil. 2006. *Restless Souls: Rebels, Refugees, Medics and Misfits on the Thai-Burma Border*. Bangkok: Asia Books.

- Tsuneishi, Takao. 2005.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ailand and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Discussion Paper No. 32,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ZOA. 2002. *Education Survey 2002*. Mae Sot: ZOA.

Website

<http://www.unhcr.org>

<http://www.fmreview.org>

인터뷰

KNU 사무총장, 2005. 6. 24

신디아 의사, 2004. 12. 8/9

Beyond Refugee Camps:

A Study on the Connections between Karen Refugees and the Outside World

Lee Sang Kook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Karen refugees in refugee camps in the Thailand-Myanmar Borderland make connections with the outside world. It criticizes the existing research which tends to deal only with the refugees inside the camps and approach them only as victims. This paper shows that though they live in unfamiliar and restricted environments, they make attempts to build networks beyond refugee camps. It reveals that the refugee camps are interconnected through the distribution system of aid, education, and church though scattered along the border. A central refugee camp plays a big role in the interconnection, while a nearby border town serves as a window whereby the refugees make sense of the outside world. Finally, this study shows that they build up transnational connections with the help of overseas Karen, foreigners and information technology.

Key Words: Karen refugees, refugee camps, connections, transnational connections, border

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Tel_02 705 4736 Email_skleesea@sogang.ac.kr